

남원 원스킨화장품, 베트남 수출

20만 달러 규모 제품 선적식 가져… 해외 판로 개척·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남원시는 지난 26일, 노암산업단지 바이오산업특화단지에서 입주기업인 ㈜원스킨화장품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스킨화장품(대표 김경희)은 바이오산업특화단지 입주기업으로, 그동안 남원시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한 수출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00만 달러(한화 92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낸 남원의 대표적 바이오 뷰티기업이다.

이번 선적식은 첫 수출 물량으로 20만 달러(한화 2억 8천만원)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원스킨화장품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멕시코, 두바이, 브라질 등 해외 여러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수출 성과가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은 물론, 남원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세계 뷰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



남원시는 지난 26일, 노암산업단지 바이오산업특화단지에서 입주기업인 ㈜원스킨화장품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안전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규모는 55억 달러(한화 7조 5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러한 세계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남원 바이오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남원

바이오산업특화단지를 전복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뷰티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화장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남원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지역 산업과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원산마을 치매안심공원 준공

지사면 행복(도약)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 추진

임실군이 지사면 행복(도약)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원산마을 치매안심공원 준공식을 지난 24일 지사면 원산마을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박정규 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도약)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5

억원의 군비를 들여 2022년부터 4년간 진행했으며, 치매안심공원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태양광 설치,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 건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됐다.

공원 내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운동기구 10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공간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가을꽃·이벤트 가득

국화·코스모스로 방문객 맞이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허브밸리가 화려한 가을꽃 경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선보이며 남원을 대표하는 가을철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으며, 청명한 가을 정취 속에서 지리산 허브밸리가 삼색 국화와 오리지널 코스모스로 가득 물들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허브밸리 진입광장과 원형광장에는 삼색 국화가 화려하게 피고, 4ha 규모의 오리지널 코스모스 꽃단지에는 가을 정취가 가득 펼쳐진다.

또한 체험과 이벤트도 풍성하다. 복합 토파아린 열대식물원에서는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해설사가 해설투어와 반려식물 키우기 체험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허브밸리 내 6곳을 돌며 스탬프를 모으면 선착순 5,000명에게 메리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허브밸리가 삼색 국화와 오리지널 코스모스로 가득 물들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폴드 화분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며, 허브밸리에서 직접 재배한 로즈마리를 활용한 허브차 시음 행사도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정신건강보건의센터,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성료

남원시보건소와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남원 예촌 마당에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공연으로 구성, 체험 부스에서는 △정신건강 정보제공 △우울증 척도 검사 및 상담 △뇌파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측정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5개 부스 체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증정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문화·예술공연은 윈드오케스트라, 소리꽃합창단, 불라레티의 오카리나 연주 등이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



지난 26일 남원 예촌 마당에서 열린 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선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정신건

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친 일상에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난 26일 열린 순창군 가족센터 개관식.

세대 잇는 화합·소통 공간 탄생

순창군 가족센터 개관

‘순창군 가족센터’가 지난 26일 개관식을 갖고 공식 문을 열었다.

가족센터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교육·문화의 거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 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0년 2월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약 5년간의 과정을 거쳐 완공됐다.

센터는 층별로 기능을 특화해 운영된다. 1층에는 작은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이 마련돼 교육과 돌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인 충신리 석장승(제101호, 남)과 남계리 석장승(제102호, 여)이 전시대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했다.

2층은 가족센터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을 집약 배치하여, 복지와 상담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전문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과 정서적 지원까지 가능한 종합 복지 공간으로 활용된다.

3층은 그동안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육천미술관 등에 분산되어 있던 군민 사회교육 기능을 통합했다. 생활양재, 광목자수, 사군자 등 11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가족센터는 세대를 아우르는 군민 모두의 사랑방이자, 가족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는 든든한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복지를 증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교통부 장관상’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K-Geo 페스티벌에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원시는 공간정보 기반 정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공간정보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고정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시각장애인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지도 구축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활용 가치가 높은 공간정보 구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쉐린지 공모사업



에도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첨단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서울·부산서 열리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여

임실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4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 5개소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임실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행사는 서울광장(9.24.~9.26.), 서울강서구 마곡광장(9.25.~26.), 서울 천원공원(9.25.~26.), 부산진구청(9.29.~9.30.), 서울 마포구청(9.30.~10.1.)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임실엔치즈플러스터, 임실 축육 및 지역 농가 15개 업체가 참여해 치즈와 유제품, 육류, 전통 장류, 한과 등 100여 품목을 시장 가격보다 10~20% 저



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행사에는 재경임실군민회원 5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홍보에 나섰으며, 전복사랑도민증 가입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적극 참여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양성평등 강사 양성 과정 수료식

남원시가족센터는 지난 25일, 가족센터 다목적실에서 ‘양성평등강사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양성평등기금 여성일자리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체 11명의 수료생이 배출, 수료생들은 앞으로 남원시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과정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양성평등의 기본 개념, 성별 고정관념 해소, 젠더폭력 예방, 일·가정 양립 등의 주제를 포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참여형 토론과 사



례 중심 수업을 통해 수료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실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성가족과 김미옥 과정은 수료식에서 “앞으로도 양성평등 강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들의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전통시장 공공 카트 대여 서비스 운영

순창군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순창시장에 공공 카트 대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장보기가 불편한 고령자와 여성,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이용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은 주민 친화적 정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카트 대여는 점심식 카트와 일반형 손수레를 시장 내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창시장 버스류게일 인근에 일반 카트 30대, 손수레 30대 등 총 60대를 배치했으며, 모든 카트에는 20대 방지를 위한 인식표와 GPS를 부착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시장 방문객이 대여 대장에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카트를 빌릴 수 있으며, 장보기를 마친 후에는 지정된 거점에 반납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공공카트 대여사업은 작은 아이디어이지만 군민 생활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추석맞이 섬진강 환경정비 실시

순창군 공무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섬진강 용골산 일대 환경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25일 용골산 주차장과 섬진강 전망 바위, 군락지 일원에서 ‘2025년 추석맞이 섬진강 환경정비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실·과·읍·면장과 팀장 등 190여 명이 참석해 하천 주변의 쓰레기와 잡초를 제거하고 불법 투기물을 정비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안전 수칙을 공유한 뒤 현장별로 나눠 정비에 나섰으며, 섬진강 전망대 주변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주요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추석 명절 대비 정수처리 시설물 점검

임실군이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정수처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일 8,000㎡ 및 2,000㎡ 시설용량의 정수장 2개소를 대상으로 응집, 침전, 여과, 소독 과정 등 정수처리 공정별 시설물 및 기계설비(펌프, 교반기 등) 정상작업 운전 및 이상 유무, 전기시설물 누전 및 수질 자동 측정기의 실시간 감시 체계 등을 점검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수리·보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추석 명절 대비 수도시설 점검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